

# 새벽종

2024 05+06 제14호



지구를 살리는 오늘의 작은 움직임,  
모두를 위한 내일을 만들다



## 같이, 가꿔봄

새마을운동으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가까이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해서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매거진 〈새벽종〉 e-Book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 서재



예스24



### 2024 05+06 제14호

새마을 중인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이 이끄는  
탄소중립의 길

새마을 인터뷰  
서울 마포구새마을회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 ▶ [youtube.com/@saemaul](https://www.youtube.com/@saemaul)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https://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xkxnT](https://pf.kakao.com/_zNxkxnT)

## 같이, 가꿔봄

새마을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모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치유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손길과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발걸음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마음을 모아 온전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만듭니다. 이 길은 지구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푸른 숲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풍요롭고 안전한 터전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탄소중립  
실천에는 많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 CONTENTS

2024 05+06  
제14호



**발행일**  
2024년 6월 10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전문수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광고·구독 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THEME

### 새마을운동으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 06 새마을 줌인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억하다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 10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이 이끄는 탄소중립의 길  
실천과 성과



#### 14 반가운 울림

기업도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라이트루트, 오이스터에이블

#### 18 함께 공감

새마을운동을 탄소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안영철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 20 새마을 타임즈

풍요를 가져다준 황금의 왕

#### 22 새마을 리더부 ①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 마을과 마음을 예쁘게  
서울 마포구새마을회



#### 26 새마을 리더부 ②

새마을운동으로 지키는 생태 자원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 30 청년, 미래 그리고 새마을

‘같이’의 가치로 뭉친 청년들  
출범 1주년 기념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캠프



#### 34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 협력관 초청 연수  
- 캄보디아 새마을협력관 친보담  
- 우간다 새마을협력관 카용고 스테픈

#### 38 희망 에세이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삶을 행복하게  
서로에게 건네는 칭찬 메시지

#### 40 섬표 여행

술, 바다, 커피 향기에 취하는 낭만의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웃는 친환경 나들이

#### 46 새마을 포커스

#### 58 새마을 라운지



#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억하다

##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새마을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마을기와 기념 현수막 게첨, 봄꽃과 나무심기, 경로잔치, 이미용활동, 계절김치와 반찬 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글. 편집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 제14회 새마을의 날

• 4월 22일 법정기념일 제정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성과를 기념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현대 사회에서도 되새겨 보는 날로, 2011년 2월 18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개정안은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진행됐다. 도시 곳곳의 도로와 군집소, 명소에는 새마을기와 새마을운동 제창 제54주년을 알리는 현수막이 펼쳐거리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많은 이에게 알렸다. 지역마다 기념식, 탄소중립 실천 사업, 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새마을의 날을 기념했으며,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외쳤다.



## 새마을운동 제창 제54주년

•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잇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은 지금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의미를 잊지 말고, 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주간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는 날이자 앞으로도 새마을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새마을의 날을 기리며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자.



## 실천과 봉사로 새마을주간을 기념하다

### • 함께 외치는 내일의 새마을

새마을주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개최돼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비전을 널리 알리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며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 등 새마을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지도자들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1.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2. 경상북도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나무를 심었다. 새마을정신을 기리고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함께 나무를 심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새마을정신 계승, 지구환경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기념식수  
2. 부산 수영구새마을회 새마을 꽃동산 봄꽃 심기



1. 서울 중랑구새마을회 군집기 계양
2. 경기 안양시새마을회 중앙공원 도로변 새마을기 계양



### •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드높이다



새마을주간에는 새마을기와 기념 현수막도 곳곳에 걸렸다. '새마을운동으로 다시 한번 도약!', '녹색 성장을 위한 새마을운동' 등의 슬로건으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동참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늘날 새마을기는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마을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가운데 황색원은 협동과 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세 개의 잎은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새마을정신을 의미한다. 또 줄기의 밑이 넓은 것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한다.

1. 대전 동구새마을회 열무김치 나눔
2. 전남 해남군새마을회 어르신 염색 봉사



### • 따뜻한 나눔으로 빛나는 새마을주간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나눔은 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지난 새마을주간 전국의 많은 새마을(지)회는 돌봄과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연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어르신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열어 안부를 살피고 온정을 나눴다. 이불빨래, 이미용활동, 계절김치 및 반찬 나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을 돌보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

# 새마을운동이 이끄는 탄소중립의 길

## 실천과 성과



탄소중립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업사이클링으로, 캠페인으로 그리고 나무를 심으며, 새마을운동이 실천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 성과를 알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의미 있는 변화

#### 친환경생활 실천 정착



인천광역시부녀회 의류재활용 리폼교육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나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친환경생활교육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캠페인을 전개해 많은 사람에게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동기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그밖에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공모전, 워크숍 등을 개최해 우수한 친환경생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다

####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천·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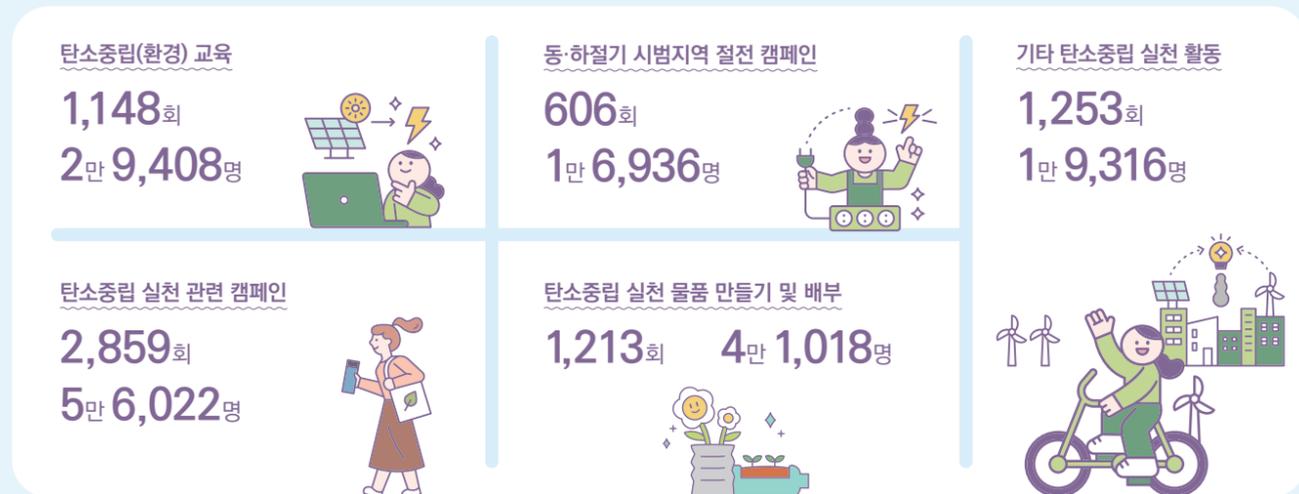


강원 철원군부녀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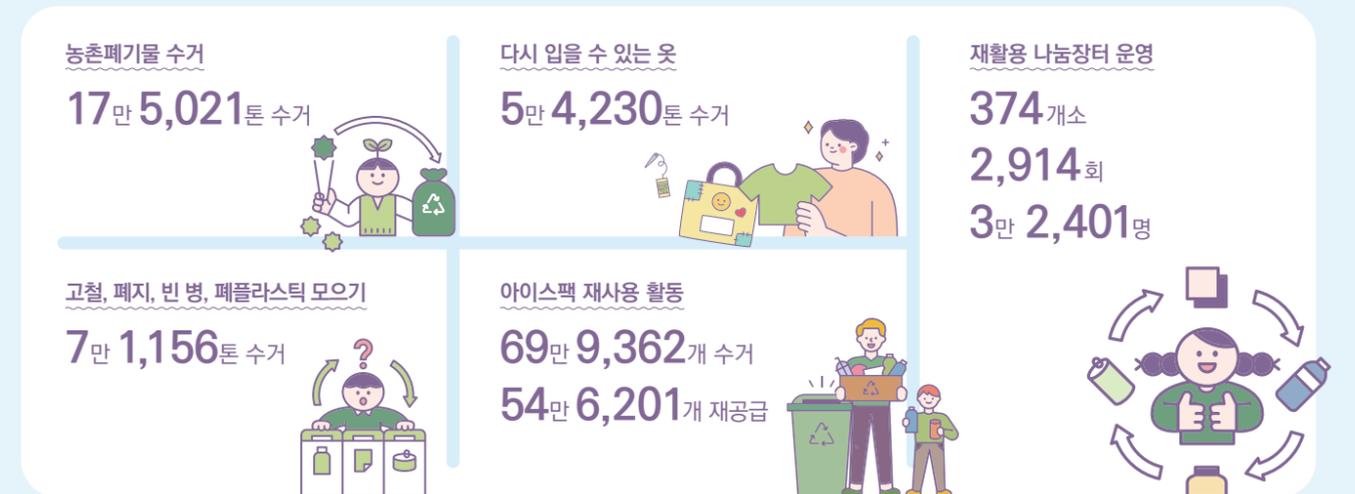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이를 계

속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새마을운동은 폐기물로 취급받지만 충분히 '재활용', '재사용', '새활용(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순환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기 어려운 폐현수막을 수거해 이를 장바구니나 앞치마 등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을 지역 주민에게 나눔으로써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또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최근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으로 늘어난 아이스팩을 수거해 깨끗하게 씻은 후 상인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나눔장터를 열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나누면서 자원절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3년 전국 기준



2023년 전국 기준



## 아름다운 지역과 행복한 지구를 만들다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생태 보호 및 관리



전남 영암군새마을회 나무심기

자연환경 보호는 골목, 공원 등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에서 시작한다. 새마을운동은 도로변과 휴면부지 등에 나무를 심고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녹색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을 가꾸는 일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일회용품 제조 및 사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많은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한번 훼손된 숲이 완전히 복구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지역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하천처럼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주요 관광지의 환경정화에도 적극적이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깨끗한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2023년 전국 기준

### 새마을 대청소(줍깅)

9,509회 12만 6,199명



### 산, 바다, 하천 정화

1,781회  
4만 279명



### 화단 조성

2,155개소 1,354만 568송이  
3만 3,848명



### 나무 심기

1,449회 29만 178그루  
1만 9,002명



## 탄소중립을 위한 힘을 모으다

유관기관 협력사업

탄소중립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개개인의 실천

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 또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모두의 협력이 모여야만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이뤄가며 함께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

### 영농폐비닐 수거경진대회

- 협업 기관: 한국환경공단
- 대상 지역: 경기 안성, 전남 해남(환경부 장관상 수상)
- 기간: 2023. 2. 27. ~ 4. 30.
- 수거 실적: 65만 9,580kg



###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

- 협업 기관: 환경부
- 기간: 2023. 7. ~ 12.
- 참여: 경기도 시군 새마을지도자 59회 2,024명, 부산시 관내 대학 8개소 대학생 34회 598명
- 내용: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강의, 탄소중립 사례 공유, 폐기물 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 등

### 남북 그린데탕트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나무 심기)

- 협업 기관: 산림청
- 기간: 2023. 3. ~ 5.
- 지역: 서울시 등 9개 시도, 59개 시군구 새마을지도자 총 3,197명
- 내용: 소나무, 은행나무 식재(총 9만 2,235그루)



### 2023년 하절기 지역절전캠페인

- 협업 기관: 에너지시민연대
- 기간: 2023. 7. 25. ~ 9. 1.
- 참여: 강원도 3개 시군, 충청남도 4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총 1,245명
- 내용: 부채 배포(총 1,000개) 및 에너지 절전캠페인 전개



### 2023년 동절기 지역절전캠페인

- 협업 기관: 에너지시민연대
- 기간: 2023. 12. 6. ~ 26.
- 참여지역: 충청북도 2개 시, 충청남도 3개 시 새마을지도자 총 3,213명
- 내용: 수면양말 배포(총 2,750개) 및 에너지 절전캠페인 전개



### 2023년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교육

- 협업 기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기간 및 장소: 2023. 11. 7. ~ 9.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및 울진원전 등
- 참여: 지회장 및 지도자 등 71명
- 내용: 에너지·탄소중립 이론교육 및 에너지시설 현장 교육



# 기업도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기업들

기후 위기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며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으로 생활함으로써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생산 방식과 제품을 개발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친환경적인 기술과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글. 이원복 사진. 라이트루트, 오이스터에이블

# Net Zero



## 전기차 배터리의 이면에서 발견한 가치

### 라이트루트

라이트루트(텍스닉)  
대표: 신민정  
번호: 070-7655-9843  
이메일: texnic@rightroute.kr  
홈페이지: https://texnic.kr



텍스닉 원단

# RightRoute Inc.



### 기능성 원단으로 변신한 폐배터리 분리막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확산하면서 친환경 이동 수단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전기차 가매년 증가하고 있다. 운행 중에 직접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고, 내연기관 차량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에도 이면이 존재했으니 바로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완구용 건전지야 잘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는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소재도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 원단 생산 기업 라이트루트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의 폐분리막을 활용한 기능성 원단 '텍스닉(TEXNIC®)'을 개

발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배터리 분리막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으로 양극과 음극을 나눈다. 뛰어난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처럼 미세다공형 구조로 기능성 섬유에 필요한 투습, 방수 기능을 갖췄다. 문제는 이 얇은 분리막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재사용할 수 없어 많은 양이 폐기되는 점이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분리막 폐기물은 약 1만 톤으로 약 10억 야드(약 91만 4,400km) 정도의 원단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라이트루트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배터리 분리막 고유의 미세다공형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수거한 폐분리막을 전량 활용하기 때문이다. 추가 폐기물이 없고 재활용 공정에서 물과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이기도 하다.



TEXNIC® 원단으로 만든 재킷  
약 75g의 탄소 저감 ↓



텍스닉으로 만든 의류에 달린 행택

### 친환경 패션을 넘어 더 미래로

라이트루트가 폐배터리 분리막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가치는 상당하다. 분리막 1m당 약 30g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텍스닉'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제시한 것이다. '빈폴골프', '제로그램', '무음'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해 패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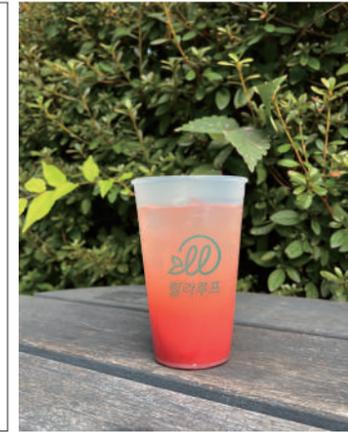
고 있다. 또 그동안 어려울 것이라고만 여겨졌던 분리막 폐기물 재활용을 해냄으로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보여줬다.

또한 라이트루트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수치화하고 폐기물의 출처 등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텍스닉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별도의 행택이 달려 있다. 소비자가 행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탄소배출 저감 수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루트는 앞으로 단순히 원단 생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텍스닉이라는 소재를 통해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트루트의 철학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 패션의 확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오늘의 분리수거



랄라루프 다회용컵



랄라루프에 다회용컵을 반납하는 모습

관없이 10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모인 포인트로 기프트콘이나 업사이클링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실천한 이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탄소중립 실천의 동기를 얻는다.

'랄라루프'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다회용컵 무인 반납기다. 음료 포장 구매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면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고, 사용이 끝난 다회용컵은 곳곳에 설치된 랄라루프를 통해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반납된 컵은 회수되어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고온 살균 등 여섯 단계의 꼼꼼한 공정을 거친다.

제주도 내 스타벅스 매장과 제주공항 등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랄라루프는 점차 지역을 확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43대를 포함해 제주, 세종, 대구,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 185대가 있다. 주요 도시 곳곳의 프랜차이즈 및 소형 카페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니 주변에 있는 랄라루프의 다회용 컵을 이용해 보자.

### 탄소중립 실천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오이스터에이블은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랄라루프 다회용컵에는 각 고유의 ID가 담긴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컵을 어디에서 반납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고유 ID를 통해 해당 다회용컵이 몇 번 대여·반납됐는지를 분석하고 탄소 저감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오늘의 분리수거를 통해 누가,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떤 종류의 물품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등의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기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검색 빈도나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고도화된 정보다. 이처럼 오이스터에이블은 자원순환을 즐겁고 편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완전한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탄소중립이 올 세상이 머지않았다. ♻️

## 자원순환으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오이스터에이블**  
대표: 배태관  
번호: 070-4827-5577  
이메일: company@oysterable.com  
홈페이지: <https://www.oysterable.com>



## 오이스터에이블

### 귀찮았던 분리배출을 즐겁게 만들다

누구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분리배출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에 보상이 따르거나 재미가 있다면 어떨까. 오이스터에이블은 자원순환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순환체계를 확장하는 중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

기가 다시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오늘의 분리수거'와 다회용기 반납기 '랄라루프'를 통해서다. '오늘의 분리수거'는 AIoT 분리배출함과 연동돼 자원순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앱 사용자가 분리배출함에 페트병이나 우유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투입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인식해 사용자에게 쓰레기 종류에 상

오늘의 분리수거 앱 다운받기 ▼



안드로이드



iOS

## 새마을운동을 탄소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공동체 원칙을 지구촌으로 확장하며, 세계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범지구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 안영철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 ●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다.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변화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마을공동체 자발성에 근거한 역동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대상은 마을과 주민이며, 목적은 공동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 번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적합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일찍이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적극 실천해 왔으며, 그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됐으며 지구촌 공동체 운동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구촌은 더 이상 국가 단위로 분리된 지역의 집합체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언어와 피부색, 종교는 다르지만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삶의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정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 활동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스팩 다시 쓰기

많은 나라가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룬 이면에는 환경이 파괴돼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며 지진과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아와 빈곤의 고통까지 가중되면서 더 힘든 현실에 놓여 있다.

### ● 지구촌 모두가 잘살기를 위해

지구촌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 문제를 논의하고, 상생 협력하는 탄소외교를 시작해야 한다. 세계 양극화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국가가 수평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외교의 구심점은 '다 함께 잘살기'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은 자조 정신을 구현하는 내적 운동과 공동번영 정신을 구현하는 외적 운동을 병행하며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자조 정신을 구현하는 내적 운동은 마을을 탄소중립 공동체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뤄진다. 마을(공동체)이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며 발전시키는 순환 체계를 갖추고,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을의 탄소중립 지킴이로서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탄소보안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 과정을 모니터

링하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탄탄한 자조 정신을 갖춘 다음에는 지구촌 공동번영 정신을 구현하는 외적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초국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구촌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미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전 세계는 하나의 거버넌스처럼 움직이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 이상 협치 없이 해결될 수 없다. 지구와 더불어 잘살기를 추구하는 새마을운동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탄소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역할을 한다면 지구촌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다. 🌱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을 직접 청소하는 우간다의 주민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각종 문서와 편지, 성공사례 원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작됐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4년 '새마을 타임즈'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만화 이야기를 각색해 전하고자 한다.

다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ep. 2

# 풍요를 가져다준 황금의 왕

## 경기 이천시 율면 석산1리 새마을지도자 이관섭

1972년 정부는 식량난 및 식량자급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벼를 보급했다. 당시 많은 새마을지도자는 통일벼를 재배해 식량난 해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섰다. 특히 경기 이천시의 이관섭 지도자는 쌀 증산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견인하며 '황금의 왕'이라고 불렸다.

일러스트. 정재은



### # 1. 농업에 뜻을 두고 스스로 터득하다

소년가장이었던 이관섭 지도자는 중학교 졸업 후 안 해 본 일이 없을 만큼 고생했다. 남의 집 농사를 3년간 도맡아 하면서도 하천 부지 일부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땅공과 뽕나무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입대 영장이 나왔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야 직접 하천 부지를 개간하며 본격적으로 농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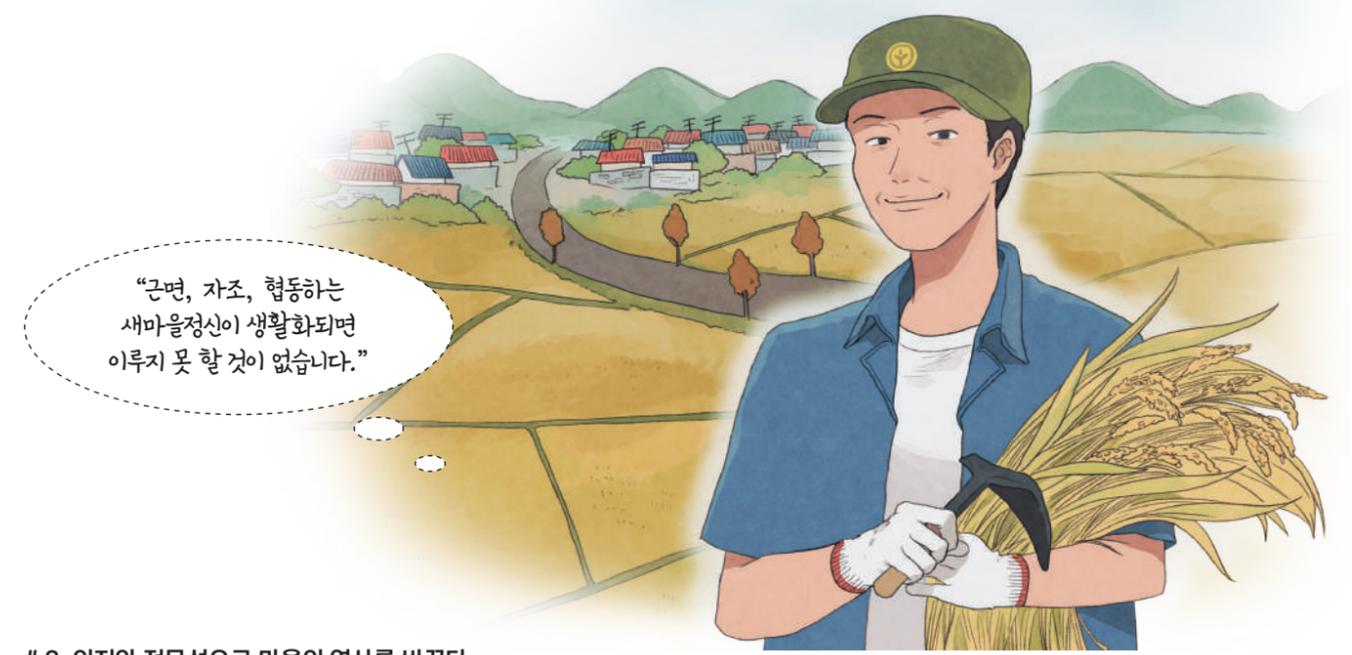
다른 부락민들은 밭을 사 담배나 인삼을 재배했지만 이관섭 지도자는 오직 벼농사뿐이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고, 영농일지를 쓰면서 전문성도 키워 다른 집 논보다 쌀의 크기도 커지고 수확량도 증가시켰다.



「황금의 왕」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 2.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새마을지도자

1971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관섭 지도자는 새마을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농촌 소득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결심했다.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재배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재래종 벼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소구에 경 외기와 다름 없었다. 그는 직접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논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되자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1단보당(약 300평) 열다섯 가마니를 수확해 재래종 쌀보다 아홉 가마니를 더 수확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관섭 지도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를 새마을지도자로 추대했다.



### # 3. 의지와 전문성으로 마을의 역사를 바꾸다

이관섭 지도자는 선진 농업인이자 새마을지도자로서 헌신적으로 마을을 이끌었다. 공동기금을 마련해 마을안길 확장, 농지정리, 전기가설, 담장 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다양한 새마을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쌀 생산량도 늘려 1975년에는 농수산부 장관상을, '유신벼'를 재배한 1976년에는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1977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전국 쌀 증산왕으로 뽑히며 산업은행 훈장도 받았다. 마을의 쌀 생산량 증가에도 기여해 1960년대 10만 원도 안됐던 호당 소득이 평균 127만 원까지 올랐다. 이관섭 지도자의 꺾이지 않은 정신과 노력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

#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 마을과 마음을 예쁘게

## 서울 마포구새마을회

홍대와 합정을 비롯해 다수의 예술 공간이 밀집해 있고, 한강과 인접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마포구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도 가장 '힙'한 장소로 손꼽힌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 혼자만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마포구새마을회가 있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망원동 시장 인근에形形色색의 아름다운 꽃이 환하게 피어났다. 이른 아침 녹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트럭에서 고운 빛깔을 띤 꽃들이 내려진다. 봄꽃과 새마을지도자들의 미소가 어우러져 시작 전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화사해졌다. 오늘은 마포구새마을회가 '언제나 마을이 이쁘다' 사업을 진행하는 날이다. 이병만 마포구새마을회장은 꽃을 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먼저 나섰다.

“봄에는 마을 화단에 팬지, 데이지, 천일홍 등의 봄꽃을, 가을에는 국화를 심고 있어요. 회원들이 힘을 모아 심은 꽃과 나무가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언제나 마을이 이쁘다’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쓰레기가 쌓인 자투리땅을 아름답게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당연히 처음부터 흙과 화단이 있지는 않았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폐냉장고와 페타이어를 활용해 화단을 만들었



다. 열심히 흙을 파던 이병석 마포구협의회장은 동네를 걸을 때면 꽃 심을 장소만 보인다며 말을 꺼냈다.

“열심히 꽃을 심고 있으면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도 자투리땅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화단이 하나둘 늘었죠. 화단이 만들어지면 앞집주민이나 상가 상인들이 대신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아 줍니다. 모두가 함께 화단을 가꾸는 셈이죠.”

마포구새마을회는 휴경지에 잣나무 심기, 홍제천 정화 사업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마포구새마을회는 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 그리고 문고까지 각 조직이 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나무심기나 김장 담그기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날이면 새마을지도자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해 힘을 더한다. ‘새마을운동은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각 지도자의 가정에도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꽃을 심은 후 물을 주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병만 마포구새마을회장은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더 발전한 마포구새마을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저를 포함해 이병석 협의회장님, 어숙희 부녀회장님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전임 회장님들이 열심히 이뤄놓은 것을 잘 이어받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또 연임되신 이순선 직장·공장협의회장과 전현경 문고회장님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마포구새마을회의 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먼저 마포구협의회는 5월부터 지역 내 말라리아모기와 유충 박멸을 위한 ‘방역 사업’을 시작했다. 이른 시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방역 차량과 분무기로 골목마다 소독약을 뿌리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수시로 실시한다.

마포구부녀회 역시 탄소중립 활동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과 ‘어르신 온천 나들이’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숙희 회장은 새마을운동에는 봉사하는 마음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가 내 돈 쓰면서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처럼 마포구새마을회는 어떤 일이든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 지난 5월 10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화단단 합동 아취임식’에서는 이병만 회장을 포함해, 이병석 회장, 어숙희 회장이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기로 한 것. 총 1,000kg의 쌀이 모였고, 마포구의 어르신 복지사업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위해 기부했다. 공동체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함께 만드는 더 좋은 마포구

지역 공동체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서로 돕고 지지하면 분명 더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마포구새마을회는 지역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새마을운동 홍보를 통한 회원 확충에도 힘을 예정이다. 올해 연임한 이순선 직장·공장협의회장과 전현경 문고회장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확산에 힘을 쓸 것”이라는



화단에 꽃을 심는 마포구새마을회 지도자들

계획을 전했다.

올해 28곳으로 회원사가 늘어난 직장·공장협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희망을 전한다. 초·중고·대학생에게 큰 보탬이 되는 ‘사랑의 장학금’을 30년째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촌일손돕기’는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계획 중이다. 문고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현경 회장은 무엇보다 새마을문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재능기부와 교육활동으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별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흥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피서지 문고’를 개최했는데 새마을운동을 알아보는 외국인도 많이 만났죠. 정말 부듯하더라고요.”

마포구새마을회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마포구새마을장학금’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만 놓고 보니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해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새마을회는 이런 점을 마포구의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의회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얻

었다. 이에 이병석 회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권영숙 의원님을 찾아가 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상황 등을 말씀드렸어요. 협의회가 방역 활동을 할 때도 매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이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포구새마을회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환경 모니터링 요원 활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병만 회장은 이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도 이끌어낼 생각이다.

“마포구는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새마을운동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로 그들에게 서서히 다가가 함께 새마을운동을 이어나간다면 우리 마포구는 더 활력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탄소중립 실천과 연대강화로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또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포구새마을회는 이 시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향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력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추진력이 되어 더 높게 비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

## 새마을운동으로 지키는 생태 자원

###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인천 연수구새마을회는 지역에 필요한 도심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승기천 살리기, 나무 심기 등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지역 내 고려인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영상으로 만나는 ▶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이야기



## 살아 숨 쉬는 하천 만들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어느 날 50여 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자루를 들고 인천 연수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승기천에 모였다. 자루 속에서 돌처럼 생긴 무엇인가를 하나씩 꺼내 들더니 누가 가장 멀리 던지는지 시합이라도 하듯 물속으로 던진다. 풍당 소리를 내며 물속에 빠진 것은 바로 EM(유용미생물군)흙공.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남녀지도자들은 이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승기천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 개선, 악취 제거, 토양 개선에 효과가 있는 EM흙공을 직접 만들고 투척해 깨끗하고 쾌적한 승기천 만들기에 앞장섰다.

승기천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경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평소에는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또 계절에 따라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과 밀접한 곳이지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생활하수와 산업용수 때문에 오염된 일부 구간에서는 악취와 해충이 극심해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승기천의 환경 복구에 나섰고,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오염된 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구새마을회가 나선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김영채 연수구새마을회장이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하천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도시가 삽니다. 우리 연수구새마을회가 승기천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우리 하천은 결코 병들지 않을 거예요.”

이날 준비된 EM흙공은 1,000여 개. 지난 3월 연수구협의회와 부녀회가 새마을회관에 모여 만들고, 숙성 과정을 거친 상태였다. 지역을 살리는 일인 만큼 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 그리고 청년연대까지 모두 모였다. 승기천 살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EM흙공 던지기가 끝난 다음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승기천 일대를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새마을 줍킹데이’도 함께 진행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힘들었지만,



승기천에 EM흙공을 던지는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지도자들

한 마음 한뜻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연수구새마을회 남녀지도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 지역의 특색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다

연수구새마을회는 앞으로도 구청과 연계하여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 미꾸라지 방류와 수생식물 심기 등으로 승기천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승기천을 사이에 둔 남동구 새마을회와도 협력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유지·개선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내가 지키며 건강한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터전 마련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연수구새마을회는 승기천 살리기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다시 사용하기’, ‘나무 심기’, ‘줍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나무 심기에 역량을 집중시켜 약 450그루의 나무를 지역 내 유희지에 심기로 했다. 이날 모든 활동을 마친 김영채 회장은 다시 한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기온의 변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원인을 제공한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요. 한 그루의 나무, 한 줌의 흙이 소중함을 깨닫고 당장이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해야죠.”

##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연수구의 내일

연수구새마을회가 지역 주요 하천을 정화하고, 이웃을 돕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을 위한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연수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들은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영채 회장은 새마을운동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김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승기천 살리기를 포함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면서 연수구새마을회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협의회도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이어간다. 안광성 협의회장은 최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어버이날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어 짜장면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어요.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획 중이죠.”

부녀회는 지난해 큰 규모의 김장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 2,700세대에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탁경옥 부녀회장이 부딪혔던 기억이 많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다문화 이주여성 관련 사업도 진행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새마을운동 본연의 가치를 실현했어요. 탄소중립도 꾸준히 실천했는데, 폐현수막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김장나눔 때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만들어 고려인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죠.”

지난해 연수구새마을회는 정책과제 수행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도 활발히 나서면서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지역 선정 당시 연수구새마을회 남녀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알렸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우리나라의 연결을 강화하며 인천 연수구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연수구 내 거주하는 9,000명 이상의 고려인 동포를 위한 새마을사업도 더 활발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고려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을투



정화된 승기천의 모습  
승기공원 줍깅활동

어, 한식 교실,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홀몸 어르신과 소외이웃을 위한 계절감치 나눔 사업과 해충 박멸을 위한 포충기 지원 사업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돕는다.

이렇듯 연수구새마을회는 각 조직이 화합과 협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더 나아가 연수구새마을회는 CMS 후원회를 조직해 탄탄한 재정 체계를 마련하고 영향력을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이다. 승기천 살리기 사업이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연수구새마을회가 지역에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지 눈여겨보자. 🌱

# 5월의 어느 맑은 날, '같이'의 가치로 뭉친 청년들 출범 1주년 기념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캠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안고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맞춰 걸어 온 지 어느덧 1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온 청년들의 값진 땀방울을 빛내고자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양일간 새마을운동중앙회 일원에서 열린 청년캠프다.

글. 김지현 사진. 이도영



### 지난 D+365를 그리며, 새로운 D+365를 향해

비구름의 방해 없이 하늘에서는 오직 햇살만이 내리쬐었다. 녹음으로 우거진 도로를 한참 달리다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에 쫓겨가고 따라가 보니 수십 개의 텐트가 한편에 펼쳐져 있다. 각 텐트에는 저마다의 설렘으로 꽉 채워진 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텐트로부터 고개를 돌리자, 그늘에 삼삼오오 모여 한껏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쾌청했던 지난 5월 18일, 전국에서 활약 중인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과 가족 및 친구 500여 명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1박 2일 일정의 '청년 캠프'를 마련한 것이다. 5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19일 오전 11시까지 계획된 이번 청년캠프는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 및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대의원 총회로 구성됐다. 청년캠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오후 3시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1주년을 축하하고, 회원들의 지난 1년의 발자취를 격려하고자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직무대행),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더불어 12개 시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청년정책위원회 등 많은 청년이 한자리에 모였다.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을 대표해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초대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배진호 회장은 대강당을 가득 울릴 정도의 웅장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보람찬 활동을 한 데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자리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1년을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어 자리를 빛낸 내빈들의 환영사와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전문수 회장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차세대 새마을 리더자가 될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는 인사와 함께 "청년들이 오늘 캠프를 계기로 더욱 단합을 쌓아 단단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 이 시대의 공동체 운동을 강조했다.



**모두가 기다린 이 시간, 화합의 장(場)으로**

운동장에는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를 떠올리게 하는 만국기가 봄 바람에 펄럭였다. 가장자리에는 각 조를 위한 그늘막이 설치됐고 엄마, 아빠를 따라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도 눈에 띄었다. 청년회원들은 하나같이 “어색함을 푸는 데는 서로 몸을 부딪치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마음 한목소리로 응원하는 게 제격”이라고 말했다. 미니운동회의 조는 단합과 화합의 장인만큼 두 개 이상의 지역이 한 조를 이뤄 8개 조로 편성됐다. 몸풀기를 시작으로 색색공 전달하기, 조장 댄스 타임, 6인 7각, 소망 탑 풍선 쌓기, 장애물 계주 경기를 치렀다. 경기와 경기 사이마다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미니운동회의 열기를 돋우는 데 일조했다. 종합 우승은 1조(서울 지역)가 차지했다. 다른 조들은 1조의 우승에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운동장을 떠날 때, 청년들의 표정이 개회식 때와 사뭇 달랐다.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청년들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한낮의 미니운동회 후 야외에서는 MZ세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분식과 통바비큐, 음료 등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요리부터 칵테일, 생맥주 등 청년들의 팍방울을 식혀줄 푸드코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영화 <쿵푸팬더4> 야외 상영회가 열렸고, 청년콘서트와 PUP(팝), 캠프파이어, 캠핑을 위한 텐트들이 줄을 이뤘다.



무엇보다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라는 공통 분모 덕분이 아니었을까.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청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실천하는 청년들. 다가올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발맞춰 나가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원들이다. ♡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다음날 5월 19일 중앙회 제3강의실에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돌아보고 2024년 기본사업계획 및 획책 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Mini Interview**

**캠프에서 만난 청년들**



우경호 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세대를 연결하는 이음새’이다.

지난 1년의 과정을 떠올리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감개무량해요. 시작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하다 보니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있는 모든 연대 역시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캠프 1일 차 저녁에 있는 바비큐와 팝(PUB) 일정을 통해 다른 지역 회원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진심의 서사가 있는 눈물버튼’이다.

함께 온 아내와 여동생이 연수원과 회원들의 규모를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새마을운동이 쌓아온 가치를 청년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져요. 또, 미니운동회처럼 타지역 회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되어 있어서 기대도 되고요. 캠프에서 50명의 회원과 인사하는 게 목표예요.



김현우 서울강동구ESG청년새마을연대 회장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일상생활’이다.

전남 보성군은 작년 2월 말에 창단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청년이 하는 봉사활동’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돌이켜보니 전국 청년새마을연합회 일원임이 자각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1박 2일 동안 얼굴 마주하며 지내게 될 텐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활동 등 많은 것을 교류하고 싶어요.



임대일 전남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회장

# “새마을운동은 최고의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 캄보디아 새마을협력관 친보팜



캄보디아는 현지 한-캄친선협회의 새마을운동 도입 요청으로 지난 2009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그해부터 2019년까지 2개 마을(소년차이, 캄퐁트날)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개 마을(프레이 로미트, 오 목 락, 룬돌 뜨메이, 춘롱 음루)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해 환경개선사업(마을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새마을주택 건립)과 소득증대(가축은행, 공동농장, 법씨은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에 함께한 캄보디아의 친보팜 새마을협력관을 만나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신성욱



###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개발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새마을운동은 2012년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 접했어요. 그때 새마을운동이 훌륭한 지역개발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 새마을운동을 배울 때는 '과연 이게 사실일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책에만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새마을운동의 힘을 알게 됐죠. 지역 개발 정책으로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로서 학위도 받았고, 졸업 후 캄보디아로 돌아와서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지역개발부에서 일하면서 직접 체험했죠.

### Q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캄보디아 내 4개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운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마을회관 건설, 수도관 설치, 위생 시설 설치 등 마을 환경 개선이 우선이었죠. 지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관리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죠. 정부 주도하에 각 마을에서 새마을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초청연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Q 새마을운동으로 캄보디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새마을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 저처럼 새마을운동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초청연수를 받고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죠. 과거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금의 발전을 이뤘음을 알게 된 캄보디아 새마을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새마을협력관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죠.

### Q 이번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는 어땠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공부해 왔고, 초청연수도 여러 번 받았지만, 매년 업그레이드된 강의와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워요. 이번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성일 국제협력국장의 강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배웠어요. 또 세계 각국의 협력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국가별 시범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캄보디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 Q 캄보디아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마을운동은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의식 혁명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다리를 만드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나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화된 정신과 의식은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죠.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단순한 마을 단위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각국의 정규 교육과정에 넣으면 좋겠어요. 일찍부터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

# “새마을운동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우간다 새마을협력관 카용고 스테픈



우간다는 지난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나 한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펼치는 자생마을도 현재 370여 곳이나 된다. 2024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우간다의 카용고 스테픈 새마을협력관에게 우간다의 새마을운동을 물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신성욱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간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협력관으로서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주민을 교육하고 있어요. 또 각 시범마을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을 돕는 고문 역할도 하고, 새마을운동 사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외에도 교회 목사, 초등학교 운영,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일을 통해 우간다에서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전에 복지학교의 교사로 근무했어요. 하지만 저와 주변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지 않았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지인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알게 되었어요. 2011년부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고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삶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새마을운동을 알고 난 이후 조금만 노력한다면 새로운 길이 펼쳐지겠다고 생각했죠.

**Q 우간다의 새마을운동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우간다에는 7개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있고 자생마을도 약 370여 곳 정도 있어요. 이 마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과 사업이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 수행하고 성과를 얻고 있죠. 한 예로 우간다의 캉구루미라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환경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나무 심기 사업을 실시했고, 카라갈라 마을에서는 파인애플 건조 사업을 추진해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얻기도 했죠.

**Q 새마을운동이 우간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새마을운동을 잘 몰랐을 때는 단순한 복지사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구조를 알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었죠.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마을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한 발씩 더 움직이게 됐죠. 이렇게 주민 의식이 생긴 거예요.

**Q 이번 초청연수 기간 동안 무엇을 얻으셨나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장준철 국제사업팀장의 '시범마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라는 강의가 기억에 남네요. 새마을협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의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알 수 있었죠. 재무 관리 방법이나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도 배웠으니, 우간다로 돌아가면 바로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가천메이커스페이스와 스마트팜에 방문해서 봤던 선진기술도 인상 깊었습니다. 당장 우간다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리 알아둔다면 훗날 우간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 앞으로 우간다의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나요?**

'이웃이 잘살아야 나도 잘산다'는 말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증명되고 있어요. 새마을운동으로 우간다가 훨씬 더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아프리카 주변국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날이 올 거예요. ✦

#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삶을 행복하게

## 서로에게 건네는 칭찬 메시지

고래도 춤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칭찬 한마디. 칭찬은 우리 삶에서 작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을 모아 이로운 가치를 지키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긍정적인 힘을 지닌 새마을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협의회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윤종희 서울시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윤종희 서울시협의회장님은 탁월한 추진력과 새마을지도자들을 가족처럼 살피는 따뜻한 품성,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연탄과 쌀 나누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진정한 새마을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From\_ 김맹수 경기도협의회장



“김맹수 경기도협의회장님의 따뜻한 칭찬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_윤종희 서울시협의회장

### 부녀회

**사회적 포용력을 갖춘 따뜻한 전미용 강원특별자치도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평창군새마을부녀회를 최고의 부녀회로 만드신 강원특별자치도부녀회 전미용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회장님은 새마을돌봄 희망노을사업을 마을단위까지 구축하며 다문화 이주여성과의 통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전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From\_ 광명순 충청북도부녀회장



“충청북도부녀회 광명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칭찬을 받고 칭찬할 다음 분을 떠올리다 보니 오고 가는 따뜻한 칭찬에 제 마음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칭찬의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_전미용 강원특별자치도부녀회장

### 직장·공장협의회

**소통하며 이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소유자! 김시범 직장·공장제주시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시범 직장·공장제주시협의회장님은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역 사회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장님의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회장님의 노력은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From\_ 박경호 직장·공장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제주도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든 회원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우리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김시범 직장·공장제주시협의회장



### 청년새마을

**진정성 있는 봉사정신을 갖춘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류민성 총무부장님을 칭찬합니다.**

류민성 총무부장님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역에서 노숙자와 이웃을 위한 다과 나눔 봉사가 있었는데, 총무부장님은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이웃을 도우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무부장님의 따뜻한 마음가짐과 대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팀원으로서 매우 든든하며 많은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류민성 총무부장님을 응원합니다.

From\_ 이혜건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대외협력부장



“나눔의 기쁨을 알고 활동해왔을 뿐인데, 동료분께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근면, 자조, 협동으로 우리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나눔, 배려, 봉사로 세상 곳곳에 밝은 빛을 뿌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청년다운 생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류민성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총무부장



대학새마을

**사려 깊은 마음씨를 가진 장혁 경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장혁 회원님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렵지 않게 말을 걸며 그들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해외 봉사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는 모습을 보인 장혁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From\_ 문초원 신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갑자기 받은 칭찬에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평소에도 주변 분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_장혁 경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 문고

**세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이길용 문고 경북 문경시지부 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이길용 문고 경북 문경시지부 부회장님은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동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입니다. 이 부회장님은 경상북도 새마을대학 5기 동기생 중 한 분이신데 수업 시간에도 지각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수업에 임하며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모임에서 교통이 불편한 학우를 위해 편안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From\_ 박병숙 문고 경북 김천시 대항면분회장



“문고 회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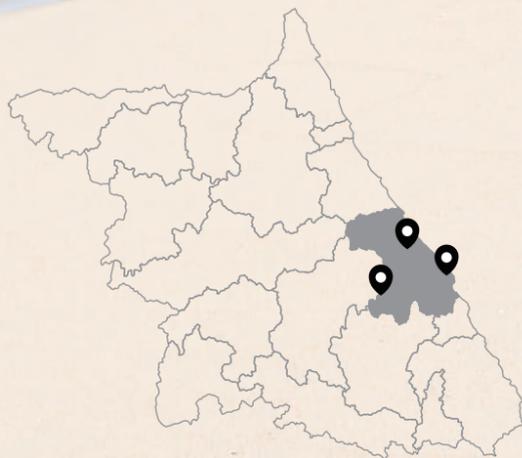
\_이길용 문고 경북 문경시지부 부회장

# 솔, 바다, 커피 향기에 취하는 낭만의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대관령 금강소나무의 짙은 솔향부터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바다 내음 그리고 부드러운 커피 향까지.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향기를 품은 도시다. 특히 여름철 더욱 청량해지는 녹음과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백사장의 풍경은 여행자의 마음을 흠치기에 충분하다.

글. 김채은



울곡 이이의 탄생지 오죽헌



##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생가 '강릉 오죽헌'

강원도 강릉 출신인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울곡 이이는 세계 최초로 모자가 화폐에 나란히 얼굴을 알린 위인이다. 경포 바다로 접어드는 초입에는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나고 자란 곳, 강릉 오죽헌(보물 165호)이 자리하고 있다.

오죽헌은 우리나라 단일 주거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 중기 양반 가옥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검은 대나무인 오죽(烏竹)이 자란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이곳은 주변으로 울창한 대나무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신사임당은 33살의 나이에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인 강릉에서 기거하며 울곡 이이를 낳았다. 현재 우리는 오죽헌 곳곳에서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외삼문 현판에 새겨진 문구는 어머니를 여의고 20살이 된 울곡 이이가 지은 '스스로 수양하는 글'의 자경문(自警文)에서 따온 것이다. 그 외에도 신사임당이 울곡의 태몽으로 검은 용꿈을 꿴다는 데서 유래된 몽룡실과 울곡 이이가 유년 시절 학문을 정진했던 마루방, 울곡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울곡 기념관에서는 울곡 이이의 시와 편지, 상소문과 더불어 예술적 조

예가 깊었던 신사임당의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죽헌은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며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애지중지 가꿔왔다는 울곡매(매화나무, 천연기념물 제484호)와 울곡 이이의 선비정신을 닮은 울곡송(소나무), 이맘때쯤이면 붉은 꽃을 피우며 더위를 가시게 하는 배롱나무까지, 수백 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노거수들은 오죽헌의 풍광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중이다.

주소 강릉시 울곡로 3139번길 24

울곡 이이 동상





별 보기 명소인 안반데기



### 별빛이 쏟아지는 언덕 '안반데기'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과 은하수를 바라보며 별 헤는 상상을 해보자.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뺄 뚫리는 기분이지 않은가. 특히 여름은 밤하늘 여행을 즐기는 '별바라기'에게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1년 중 은하수가 가장 높이 떠올라 밝은 은하의 중심부를 볼 수 있기 때문.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안반데기는 한국의 은하수 성지로 유명하다. 주변 불빛의 방해가 적고 대기가 맑아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은하수를 촬영하기도 좋다. 밤하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는 별들은 커다란 촛불처럼 마을을 은은하게 밝힌다. 사실 안반데기는 은하수만큼이나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요즘 같은 계절이면 아침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감자꽃밭을 뒤로한 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할 수 있다. 안반데기는 떡을 칠 때 아래에 받치는 넓은 나무판 '안반'과 평평한 땅을 뜻하는 강릉사투리 '덕(데기)'이 더해진 지명이다.

고랭지 배추가 자라고 있는 드넓은 안반데기



해발 1,100m 고산지대인 이곳은 지형처럼 평평한 땅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 산지다. 넓은 평원을 배경으로 봄이면 호밀 초원, 여름에는 감자꽃, 가을에는 배추밭, 겨울에는 설경 등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낭만적인 풍경으로 가득한 안반데기도 본래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불모지였다고 한다. 안반데기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정부는 산자락에 흩어져 살던 화전민들에게 땅과 집을 제공하며 안반데기로 불러 모았다. 주민들은 가파른 비탈에서 삽과 곡괭이만으로 밭을 일구었고, 그때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지금의 보금자리를 만든 것. 덕분에 비옥한 땅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공생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리고 있다.

안반데기에는 해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마을의 숙박시설이 한 곳뿐이라, 성수기에는 예약 경쟁도 치열하다. 여름밤 은하수를 관찰하기 좋은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당겨진다. 매월 1일 기준 5월은 오전 2시, 6월은 자정, 7월은 오후 10시부터 은하수를 볼 수 있다. 만약 안반데기를 방문한다면 두툼한 옷은 필수다. 한여름에도 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니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주소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 해돋이 일출 명소 '정동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해변. 새해 첫날 정동진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의 건강과 소망을 비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정동진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정동진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라시대부터 임금이 사해용왕(四海龍王)에게 친히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을 만큼 멋진 자연 풍경과 일출을 자랑한다. 이른 아침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해가 떠오르지만, 유독 정동진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장엄함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을까. 정동진 해변은 부드러운 모래와 맑은 바다가 펼쳐진 이상적인 모습이다. 해안선을 따라 걷는 순간 마음속 근심과 걱정이 작은 모래처럼 부서지는 느낌을 받으며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휴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레저 활동도 즐길 수 있다. 해변과 이어진 산책로는 걷기 좋아 가벼운 산책은 물론이고,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에도 제격이다.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



특히 정동진부터 속초, 고성으로 이어지는 라이딩 코스는 이미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해변에서의 레저 활동은 그야말로 다채롭다. 여름에는 해수욕과 서핑, 패들보딩과 같은 수상 스포츠가 인기가 많으며, 파라솔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것도 좋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모습은 정동진의 또 다른 매력.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정동진 해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며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겨울에는 산책하며 맞는 차가운 바람이 상쾌함을 선사하며, 때때로 눈이 내려 해변 전체가 하얗게 덮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

주소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 여행지에서 만나는 축제

#### 시원한 바다에 맥주를 더하다 제4회 강릉 비치비어페스티벌



전국의 맥주 애호가를 들뜨게 할 제4회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이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강릉 대표

양조장의 맥주부터 국내외 다양한 맥주 브랜드까지, 개성 넘치는 맥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번 비치비어페스티벌은 '와이키키 in 경포'라는 축제 콘셉트로 열리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맞추어 열리는 축제는 강릉 여행을 잊지 않을 추억으로 만들 것이다. 시원한 맥주뿐만 아니라 안주로 제격인 로컬푸드, 라이브 음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보자.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부터 6월 30일(일)까지  
장소 :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강원 강릉시 창해로 514)

#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 자연도, 사람도 웃는 친환경 나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넓은 들판으로 캠핑을 떠나기 좋은 요즘 같은 날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함과 여유, 즐거움을 얻는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게 많은 만큼 책임도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글. 편집실



### 가장 주의해야 할 적 '잠깐의 편함'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는 물론 종이로 만든 컵 홀더나 포장지까지, 아주 잠깐의 편함을 위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자연에 큰 부담을 안긴다. 특히 나들이나 캠핑이 부쩍 잦아지는 시기에는 쓰레기로 변한 일회용품이 산이나 들판, 해변을 뒤덮어 골머리를 앓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순간부터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어렵다.

다만 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부터 레저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모든 야외 활동에서 사람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 'LNT(Leave No Trace)' 즉, 흔적 안 남기기를 강조해 왔다.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웃도어 업체나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LNT 캠페인이 일어났고, 플로깅이나 줍깅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 'LNT' 7가지 지침

인간이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침

-  **1**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  **2** 지정 구역에서 산행 및 야영하기
-  **3**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  **4**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기
-  **5** 모닥불은 최소화하기
-  **6** 야생 동식물을 존중하기
-  **7** 타인을 배려하기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기 '최소화' 그리고 '다회용기' 친환경 나들이 키워드는 '최소화'다. 짐을 최소한으로 꾸리고, 캠핑을 할 때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0'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가벼운 나들이를 떠날 때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 필요한 것만 챙긴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다회용기'다. 식사나 간식으로 챙겨 갈 과일이나 채소가 있다면 껍질은 모두 깎아서 다회용기에 넣자. 이미 포장되어 나온 통조림이나 과자는 집에서 불필요한 포장지와 용기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담아 가면 된다. 음식물이 남아도 자연에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동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습성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이번 휴일에는 LNT 지침을 지키며 친환경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

### 〈새벽종〉 읽고, 탄소중립 실천하고!

친환경 나들이를 실천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세요. 다회용품(텀블러, 손수건) 사용, 쓰레기 가져오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호 〈새벽종〉에 소개되며,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사진(2MB)과 설명글(30자 내외)

#### 보내시는 방법

QR코드 스캔 후 파일 첨부



## 중앙회

### 2024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

중앙회는 지난 4월 19~23일 2024년 새마을 협력관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타지키스탄과 탄자니아를 포함한 총 13개국 21명이 협력관 교육에 참여했으며, 새마을협력관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배우고, 협력관 역할, 사업집행 정산관리, 새마을 시범마을 현장교육 매뉴얼 등 이론 교육을 받았다.



###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취임식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 양윤호)는 지난 5월 13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제22대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중앙협의회기 이양, 양윤호 중앙협의회장의 취임사, 김환학 사무총장 격려사, 전문수 직장-공직중앙협의회장(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직무대행)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취임식 이후에는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다. 양윤호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현대적인 문제에 적용해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연찬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4월 29~30일 중앙연수원에서 제20대 김정임 중앙부녀회장 취임식과 전국 부녀회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시도·시군구 부녀회장 2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는 부녀회지도자 간 화합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리더쉽 강의를 비롯해 지도자교육, 장기자랑 경연대회, 사진 콘테스트 등의 시간이 펼쳐졌다.



### 탄자니아-잠비아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중앙회는 지난 5월 14~23일 탄자니아-잠비아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탄자니아-잠비아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38명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마을 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탄자니아와 잠비아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연수생들은 역량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새마을문고 한마음 워크숍

문고중앙회(회장 김종철)는 지난 5월 9~10일 중앙연수원에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독서생활운동의 지속적 노력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사례 발표와 사진 콘테스트, 활동계획 공유, 문고중앙회장과의 대화의 시간 등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 2024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 청년캠프 및 정기총회

중앙회는 지난 5월 18~19일 일터와 봉사현장에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조직력 강화와 연대·화합을 위해 '새마을의 가치 실현, 청년들이 같이 실현'을 모토로 청년캠프를 개최했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이번 청년캠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중앙연수원에서 열렸으며, 대의원과 회원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 서울

####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협의회 취임식



#### 협의회 취임식·부녀회 리더십 강화교육

서울특별시협의회(회장 윤종희)는 지난 4월 25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25개구 협의회장단 및 유관단체 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종희 서울시협의회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부녀회(회장 조동희)는 관내 25개구 권역별로 총 6회에 걸쳐 부녀회장 및 동회장 3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부산



#### 대학새마을동아리 워크숍·청소년환경체험교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4월부터 관내 25개교 초중학교별로 청소년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부산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이 멘토로 수업과 실습을 진행한다. 부산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곽해주)는 지난 4월 27~28일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내빈, 지도교수, 동아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학새마을동아리 핵심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 대구



#### EM(유용미생물군) 흙공 만들기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4월 24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내빈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협의회(회장 김수현)와 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4월 13일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과 수질정화를 위한 EM(유용미생물군) 흙공 만들기를 실시했다. 만들어진 흙공은 발효과정을 거쳐 6월 14일 신천에 투척한다.

### 인천



#### 의류 재활용교육 개강식

인천광역시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4월 26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의류 재활용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4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매주 화요일 3시간씩 26회 진행된다. 철이 지나 못 입거나 쓸모없이 버려지는 의류 등을 재활용해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수업 과정으로 교육 종료 후 우수 교육생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 광주



#### 새마을의 날 기념식

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4월 24일 쌍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광주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초청 내빈 축사, 우리의 결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류재선 회장은 "소수의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새마을운동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



#### 우리 동네 안전 환경지킴이 발대식

대전광역시협의회(회장 이경원)는 지난 5월 8일 유성온천공원 두드림공연장에서 송충원 대전시 정무수석,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박찬보 시협의회 명예회장 등 내빈과 협의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우리 동네 안전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6월 한 달간 관내 초중고 등하굣길 교통안내활동과 7~9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정화조와 배수로 등의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



한마음 체육대회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5월 16일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울산시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대식 회장은 "앞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



함께 만드는 세종미래마을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만호), 농협세종시본부는 연동면 노송1리를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4월 25일 노송1리 일원에서 세종미래마을을 조성사업을 펼쳤다. 이날 조성사업은 빈집철거부지 마을청소, 나무심기, 마을정원 관람, 바람개비언덕 조성 등으로 펼쳐졌다.

경기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4월 26일 경기 이천시 빌라드아모르 컨벤션홀에서 31개 시군구 새마을가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축하 화환 대신 기부받은 쌀 300여 포대는 이천시청과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전달했다.

강원



중앙문고회장 순회간담회

문고 강원도지부(회장 김찬윤)는 지난 5월 17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김종철 중앙문고회장을 비롯한 중앙문고 임원과 시군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문고회장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 새마을문고는 이날 중앙문고회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안을 보고하고 문고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충북



시군 순회간담회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11개 시군 순회간담회를 추진해 새마을지도자와 신임 회장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활성화 방안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도 회장단과 사무처, 지자체장,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지난 4월 16일 진천군, 5월 2일 제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남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4월 24일 도청문예회관에서 15개 시군 회장단 및 새마을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도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매해 반복되는 수해 및 산불 등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재해봉사단 발대식을 전개했다.

전북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17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주제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상수 회장은 "변화와 젊음, 창의와 혁신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 5월 3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새마을지도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전라남도과 전라남도새마을회 양 단체 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경북



생명운동 실천! 흙 살리기 운동 발대식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5월 13일 칠곡보 생태공원주차장에서 '생명운동 실천! 흙 살리기 운동,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230여 명이 참석해 낙동강에 EM(유용미생물군) 흙공을 던지고, 시군별로 농약별 수거 그물망을 지급했다.

경남



새마을의 날 기념식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4월 30일 소노캄거제 그랜드볼룸홀에서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전 현직 새마을회장단 및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원섭 회장은 기념사에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5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회원단체장 등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 유공지도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북5도



사랑의 쌀 나누기 및 줌깅활동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4월 1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하늘꿈중고등학교'에 쌀 200kg(10kg 20포)를 전달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통일 이후 북한 재건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는 학교이다. 26일에는 이북5도협의회와 부녀회를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북5도청 주변과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새봄맞이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서울 용산구부녀회(회장 서연순)는 지난 4월 19일 관내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어르신 돌봄사업을 펼쳤다.



•서울 강북구 번1동부녀회(회장 손윤진)는 지난 5월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돼지불백 등 직접 만든 반찬과 계란, 떡 등의 식품을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송중동부녀회(회장 김영남)도 지난 4월 25일 얼갈이김치, 불고기 등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소외이웃에 전달했다.



•서울 송파구부녀회(회장 한선영)는 지난 5월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계절 김치(3kg) 300상자를 전했다.  
•인천 중구부녀회(회장 한만분)는 지난 3월 20일 '용유천사 나눔 릴레이'에 참여해 현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인천 미추홀구부녀회(회장 강화옥)는 지난 5월 7일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해 직접 만든 반찬을 소외계층 294가구에 전달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3동부녀회(회장 이숙미)는 지난 4월 23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식판 세척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2동부녀회(회장 정복순)는 지난 5월 2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역, 다시마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구매한 라면, 과자, 음료 등 다양하게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지역내 한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 30가구에 지원했다.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현정석)와 부평6동부녀회(회장 김경옥)는 지난 5월 9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관내 어르신 320명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을 대접하는 '오구오구 짜장데이'를 개최했다.  
•인천 계양구 계양2동부녀회(회장 이기정)는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저소득 가정 이웃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었다.  
•인천 서구부녀회(회장 권오분)는 지난 5월 2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부녀회(회장 오정희)는 지난 4월 5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밑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강원 동해시 가좌4동부녀회(회장 김옥선)는 지난 4월 23일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전개했다.  
•강원 삼척시 성내동부녀회(회장 이영자)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불고기, 닭강정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했다.  
•강원 정선군부녀회(회장 전옥란)는 지난 4월 17일 밑반찬 세트를 만들어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 18가구에 전달했다.  
•강원 화천군새마을회(회장 이선국)는 지난 5월 4일 봉어섬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핫도그, 양념감자, 캔음료 등을 제공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부녀회(회장 김인선)는 지난 5월 3일 종합체육관 식당동에서 어버이날 기념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서울·인천·강원



탄소중립 실천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최기섭)는 지난 4월 22일 이태원2동 소월로38길 외 6곳에서 지구의 날과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위한 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서울 도봉구새마을회(회장 황이선)와 협의회(회장 권오병), 부녀회(회장 장명옥)는 지난 5월 10일 중랑천에서 오염물질 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서울 노원구새마을회(회장 김오규)는 지난 4월 26일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인근 유희부지에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었다.



•서울 구로구 향동협의회(회장 신완선)는 지난 5월 13일 봄을 맞이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자투리 텃밭에 꽃씨를 심었다.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회장 추호성)는 지난 5월 1일 탄소중립 실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접 만든 재생비누 500여 개를 무료 배부했다.



•인천 연수구 옥련1동부녀회(회장 정정숙)는 지난 4월 26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변 및 아파트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인천 계양구새마을회(회장 오명석)는 지난 4월 22일 '도시환경 청결운동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버스정류소 청소 및 탄소중립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 서구 가정1동부녀회(회장 김현옥)는 지난 4월 26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클린업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협의회(회장 김영일)는 지난 4월 4일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겨울철 내내 방치되어 있던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를 실시했다.

•강원 삼척시 성내동부녀회(회장 이영자)는 지난 4월 26일 탄소중립 활동으로 페트병 라벨, 뚜껑을 분리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했다.



•강원 정선군부녀회(회장 나숙자)와 임계면협의회(회장 박종은)는 지난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을 위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양양군새마을지회(회장 김익환)는 지난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활동을 전개해 손양면 상왕도리 야산에 4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공동체 문화 조성

•부산 중구 영주2동협의회(회장 이병협)와 부녀회(회장 백말연)는 지난 5월 2일 주민센터에서 비빔밥과 다과 등을 준비해 관내 어르신 80여 명에게 대접했다.



•부산 서구 동대신2동협의회(회장 박선석)와 부녀회(회장 백숙영)는 지난 4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 70여 명을 모시고 경주 불국사, 첨성대 등으로 '어르신 1일 효 나들이'를 다녀왔다.

•부산 동구 수정4동부녀회(회장 정영애)는 지난 4월 19일 행정복지센터 옥상 텃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파를 수확하고 채소 모종을 심었다.



•부산 영도구 봉래1동협의회(회장 김준영)와 부녀회(회장 변순애)는 지난 4월 29일 관내 홀몸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봄나들이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협의회(회장 이성문)는 지난 5월 2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식과 기념품을 나누는 '사랑의 온기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부산 동래구 수민동협의회(회장 정성수)는 지난 4월 16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남구새마을회(회장 윤형곤)는 지난 4월 24일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겨울 동안 사용한 이불 등을 수거해 세탁하는 이동식 세탁 사업을 실시했다.



•부산 사하구 신평1동협의회(회장 강종원)는 지난 5월 4일 높아진 기온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모기 등 해충이 조기 발생함에 따라 해충구제를 위한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개시했다.

•부산 강서구새마을회(회장 구대원)는 지난 5월 2일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 빨래방 사업으로 세탁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부녀회(회장 정복희)는 지난 4월 26일 관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남 산청으로 떠나는 '어르신 봄 나들이 함께해효(孝)'를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4월 12일 장안을 좌천시장마을에서 관내 노인정 이불 35채를 수거해 찾아가는 행복 이불세탁 활동을 전개했다.



•대구 중구 동인동협의회(회장 김진호)와 부녀회(회장 김희자)는 지난 5월 7일 홀몸 어르신 10여 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롤케이크를 전달했다.

•대구 수성구 만촌2동부녀회(회장 장옥련)는 지난 5월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교를 위한 피자쿠폰, 과자, 과일, 양말 등을 담은 '기쁨꾸러미' 5상자(총 50만 원 상당)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울산 중구 병영1동부녀회(회장 김선영)는 지난 4월 16일 반구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부녀회(회장 이태자)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쌀국수와 떡국 2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부녀회(회장 김정렬)는 지난 4월 12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70가구에 불고기,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전달했다.

부산·대구·울산·경기·세종·제주·이북5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부녀회(회장 양순자)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떡과 음료 등 음식을 전달하는 효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경기 부천시새마을회(회장 전명환)는 지난 5월 7일 새마을회관에서 이웃사랑 꾸러미 2차 사업으로 직접 만든 고추장을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부녀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5월 3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160명에게 수건을, 경로당 9곳에 쌀과 커피를 전달하며 안부를 전했다.

•경기 오산시 신장1동부녀회(회장 임서연)는 지난 5월 17일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홀몸 어르신 70가구에 전달했다.

•경기 여주시새마을회(회장 황은미)는 지난 4월 24일 '사랑의 밥상 나누기' 사업을 전개하고 네 가지 반찬 100인분을 만들어 각 마을에 전달했다.

•경기 양평군 지평면새마을회(회장 하용기)는 지난 4월 16일 등교 시간에 지평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 동두천시 중앙동협의회(회장 차유철)는 지난 3월 27일 관내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세종 소정면협의회(회장 류창현)와 부녀회(회장 이진옥)는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다.

•제주 제주시 건입동부녀회(회장 이순심)는 지난 5월 8일 사라봉 산책로 입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시민에게 빵과 커피 등 간식을 제공했다.



•경기 안양시새마을회(회장 김의중)는 지난 4월 22일 안양5동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 '탄소중립 나무 심기' 사업을 실시했다.



•경기 오산시새마을회(회장 이광수)는 지난 4월 23일 세마교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경기 양평군 강상면협의회(회장 윤필규)는 지난 4월 10일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강상면 17개리 농경지와 마을회관에 수집해 놓은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탄소중립 실천

•부산 중구 남포동협의회(회장 박수철)와 부녀회(회장 조영옥)는 지난 4월 24일 유등인구 밀집 지역인 건어물시장, 자갈치시장, 유라리광장, 자갈치해안로 주변의 담배꽂초와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8동협의회(회장 김현성)와 부녀회(회장 어금주), 문고(회장 박정희)는 지난 4월 23일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경기 수원시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700kg와 안경 50여 개를 수거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서구부녀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5월 1일 정림동 후생학원에서 '예쁜 옷 나눔'을 사업을 전개하고 200만 원 상당의 옷과 운동화를 전달했다.
- 광주 동구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4월 25일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 충북 충주시 동량면협의회(회장 이종철)와 부녀회(회장 이옥희)는 지난 5월 10일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 충북 옥천시 군북면협의회(회장 송준영)와 부녀회(회장 이선자)는 지난 4월 20일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복 1% 나눔'으로 소외계층 돕기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 충북 영동군 상촌면협의회(회장 이태성)와 부녀회(회장 윤순희)는 지난 4월 2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감자심기' 사업을 통해 씨감자 60kg를 심었다.
- 충북 진천군부녀회(회장 김영선)는 지난 5월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월초평 문상-옥동



- 초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효(孝)를 담은 손 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충북 괴산군 장연면협의회(회장 노재훈)와 부녀회(회장 이순화)는 지난 5월 8일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장연면 경로잔치'를 열고 관내 어르신 600여 명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다. 사리면협의회(회장 신관수)와 부녀회(회장 전금자)도 지난 5월 3일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관내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효 잔치를 개최했다.



- 충북 단양군 영춘면협의회(회장 이창대)와 부녀회(회장 이금자)는 지난 5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을별 어르신 2명을 선정해 소고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사랑의 효 나눔'을 전개했다.
- 충남 천안시 직산읍부녀회(회장 윤해춘)는 지난 5월 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열무김치를 담가 전하는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충남 보령시 성주면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11개 마을 최고령자 2명씩을 선정해 총 22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했다.
- 충남 서산시 인지면부녀회(회장 이상희)는 지난 5월 9일 직접 만든 밑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후원 냉장고에 전달했다.



- 충남 당진시 신편명부녀회(회장 김경숙)는 지난 5월 9일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60가구에 직접 준비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 충남 부여군 구룡면부녀회(회장 권미경)는 지난 4월 26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클린케어 사업을 추진해 생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처리했다.
- 경북 포항시 우창동부녀회(회장 김홍경)는 지난 5월 10일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접하기 위한 삼계탕 100인분의 재료를 손질했다.



- 경북 경주시 천북면협의회(회장 김정만)와 부녀회(회장 이진희)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효 경로잔치' 개최를 위한 일손 돕기에 참여했다.



- 경북 의성군 춘산면협의회(회장 김석룡)와 부

- 녀회(회장 이경자)는 지난 5월 14일 목재문화체험장 앞 유희부지에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고구마 1,000포기를 심었다.
- 경북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는 지난 4월 30일 지역 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찾아 부피가 큰 이불 등을 세탁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했다.
- 경북 울릉군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200여 가구에 직접 만든 된장과 간장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대덕구새마을회(회장 박광수)는 지난 4월 26일 나라사랑 캠페인으로 무궁화 심기를 실시했다.
- 대전 서구부녀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4월 26일 '탄소중립을 위한 천연생활용품 나눔'을 진행해 수세미 열매로 만든 천연 수세미와 계핏가루를 끓여 만든 천연 모기 기피제, 재활용 끈을 활용한 다용도 고리 장식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240가구에 전달했다.



-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지난 5월 2일 동구청 주차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고철, 폐지, 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수거했다.
- 충북 충주시 신니면협의회(회장 진태영)는 지난 4월 15일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동'에 동참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 사업을 전개했다.



- 충북 보은군 장연면협의회(회장 배창목)와 부녀회(회장 서재순)는 지난 5월 8일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인삼거리와 장재저수지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 충북 옥천군새마을회(회장 김현숙)는 지난 4월 16일 은행리 일원에 영산홍 1,200여 그루를 심었다.



- 충북 영동군 상촌면협의회(회장 이태성)와 부녀회(회장 윤순희)는 지난 5월 7일 유곡리 일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농약병을 수거했다.

- 충남 보령시 주교면협의회(회장 이근희)와 부녀회(회장 신영임)는 지난 4월 17일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 충남 당진시 당진3동협의회(회장 심남수)와 부녀회(회장 권오철)는 지난 5월 8일 당진천 둘레길 주변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펼쳤다.
- 충남 부여군 초촌면부녀회(회장 이춘식)는 지난 4월 26일 제방 및 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송곡리 응평천, 하관천 등에서 환경정화 사업을 펼쳤다.
- 경북 포항시 오천읍협의회(회장 류관형)는 지난 5월 4일 클린데이를 실시해 폐광광동과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 경북 김천시 대곡동협의회(회장 이도희)와 부녀회(회장 박명희)는 지난 4월 26일 환경정화 사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바라기 종묘 1kg를 심었다.



- 경북 영주시 단산면부녀회(회장 안순희)는 지난 4월 22일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활동으로 도로변을 따라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단산로 주변에 영산홍 꽃나무 450그루를 심었다.
- 경북 고령군 쌍림면새마을회(회장 김윤복)와 부녀회(회장 김음조)는 지난 5월 10일 귀원리 소재 영농폐비닐 집하장에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폐농약병 선별 및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남원시 덕진구 금암1동부녀회(회장 임지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3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 전북 익산시 용안면부녀회(회장 정는숙)는 지난 5월 9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 물티슈,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 전북 남원시 향교동협의회(회장 윤만호)와 부녀회(회장 정금이)는 지난 4월 동북노인복지센터에 생필품을 기부했다.
- 전북 임실군 운암면협의회(회장 김영진)와 부녀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4월 25일 '온기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전북 고창군부녀회(회장 김정례)는 지난 4월 24일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고창군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 전남 순천시 삼산동협의회(회장 한상근)와 부녀회(회장 조봉숙)는 지난 3월 28일 용당 독방길 벚꽃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수익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전남 장흥군 유치면부녀회(회장 현화자)는 지난 5월 14일 밑반찬 4종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87가구에 전달했다.

- 전남 강진군 작천면부녀회(회장 김성진)는 지난 4월 16일 고등어묵은지찜, 감자반, 단팥빵 등을 장만해 어려운 이웃 250가구에 전달했다.
- 전남 해남군 산이면부녀회(회장 맹예호)는 지난 5월 14일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사업을 개최해 직접 만든 열무김치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 문고 영암군지부(회장 조정완)는 지난 5월 7일 학산면 독천시장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를 홍보하는 전단지 및 물품을 배부했다.



- 전남 무안군 망운면협의회(회장 신경태)와 부녀회(회장 이희숙)는 지난 4월 16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함평군부녀회(회장 변정례)는 지난 5월 17일 열무김치 등 6종의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및 장애가정 등 150가구에 전달했다.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협의회(회장 송공섭)와 부녀회(회장 서경숙)는 지난 5월 7일 떡과 과일 등으로 구성된 간식 세트를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 경남 사천시 정동면부녀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300여 명 어르신을 초청해 '무료 짜장면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남 밀양시부녀회(회장 이양자)는 지난 5월 17일 16개 읍면동부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보살피기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65가구에 전달했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부녀회(회장 김경숙)는 지난 4월 8일 관내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행사를 실시했다.
- 경남 고성군 화화면협의회(회장 승경래)와 부녀회(회장 방길연)는 지난 5월 13일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실시했다. 집 안 대청소부터 노후된 집 외부 페인트칠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전북·전남·경남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는 지난 4월 12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나무 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내공원에 철쭉 250그루, 남천 250그루를 심었다.
- 전북 군산시새마을회(회장 심영배)는 지난 4월 16일 월명공원 내 무궁화동산 및 새마을동산에 잣나무 320여 그루를 심었다.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방성봉)는 지난 4월 12일 푸른 익산 조성을 위해 잣나무와 소나무 1,200그루를 심고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새봄맞이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 전북 고창군 무장면부녀회(회장 손경옥)는 지난 4월 12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 도로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나무 잔가지 등 약 5톤을 수거했다.



- 직장·공장 전남 순천시협의회(회장 송용진)는 지난 4월 2일 호수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순천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 사업을 펼쳤다.



- 전남 곡성군새마을회(회장 김영중)는 지난 4월 1일 목사동면 죽정리 아산에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 2천여 그루를 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희망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했다.
- 전남 구례군새마을회(회장 정연숙)는 지난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맞아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군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2km 구간에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 전남 강진군새마을회(회장 김상완)는 지난 4월 17일 청정바다 지키기 환경정화를 실시해 마대 50개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 전남 영암군새마을회(회장 박찬)는 지난 4월 4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금정면 농로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 전남 신안군새마을회(회장 오인석)는 지난 5월 8일 비금면 원평리 해변에서 바닷가 대청결 운동을 전개했다.

-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송주한)와 부녀회(회장 이향선)는 지난 4월 26일 자원재활용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생비누 제조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펼쳤다.
- 경남 밀양시 교동협의회(회장 이해식)와 부녀회(회장 김금자)는 지난 5월 15일 깨끗한 교통 가꾸기를 위해 마을 경작지에 방치된 농업용 폐기물과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협의회(회장 유명재)와 부녀회(회장 김경숙)는 5월 9일 국민대청결운동을 전개해 석계전통시장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전병호)와 부녀회(회장 황춘옥)는 지난 4월 17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고 꽃나무 100그루와 봄꽃을 심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3+4월호 독자 의견



**이지훈**

청주대새마을동아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세대의 지속적 관심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젊고 활기찬 새마을운동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대학생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유광열**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잘 봤습니다. 새마을정신이 지구촌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좀 더 매진해야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하나**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행동하는 진뚜루마을공동체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마을이 곧 살고 싶은 마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뚜루마을공동체의 이야기처럼 공동체여서 더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어요!



**조영애**

새마을지도자의 이야기를 다룬 새마을타임즈가 재미있고 신선합니다. 그림으로 옛날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당시 새마을운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호에는 또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